

이번 학기 지도자의 자질과 인성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리더’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게 됐다. 과학생회 과대표를 하기도 하고, 팀프로젝트를 자주 하다 보니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아예 낯설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리더는 그냥 일을 책임지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그중에는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아예 의식조차 못 하고 살았던 부분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이번 기말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리더의 자질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방향 설정하기 – 비교적 분명해진 나만의 방향성

이번 학기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 ‘방향 설정’이라는 자질은 예전의 나보다 지금이 확실히 나아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그냥 “IT 쪽으로 일하면 되겠지”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원 진학과 연구소 입사를 목표로, 컴퓨터비전과 비전 트랜스포머 쪽 연구를 하고 싶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이 잡혀 있다. DGIST, UNIST, GIST 같은 기술원 대학원을 목표로 하면서, 관련 연구실을 찾아보고 교수님들과 컨택도 해 보고, 학부연구생으로 연구실 일을 경험해 본 것도 모두 이 방향성을 중심으로 움직인 결과다.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 최소한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고 있는 사람”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리더로서의 방향 설정이 꼭 거창한 비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팀플을 할 때도 목표 기능과 일정, 사용하는 기술 스택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일을 자주 맡는 편인데, 이런 습관도 넓게 보면 방향을 잡고 정리하는 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느낀다. 이 부분은 리더로서 내가 비교적 강점을 가진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2. 셀프리더십과 성취 습관 – 의지는 있는데, 아직 들쭉날쭉한 상태

셀프리더십과 성취 습관은 솔직히 말하면 “반은 갖추고, 반은 부족한 자질”이라고 느낀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끈기나 책임감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처리기사와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을 1년 안에 따겠다고 정했을 때도, 중간에 귀찮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결국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여 취득했다. 학부연구생 일도, 실험이 잘 안 돌아가고 로그만 길게 쌓이는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버티는 편이다.

하지만 이게 ‘습관 수준’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과제를 미루다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한다든지, 공부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는 걸 보면, 셀프리더십에서 중요한 “스스로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화”는 아직 부족하다. 리더로서 남을 이끌기 전에 나 자신을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성취를 위한 폭발력은 있지만, 꾸준함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연습 중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3. 자기 변화와 자기 관리 – 변화의 필요성은 알고, 이제 실천을 시작한 단계

자기 변화와 자기 관리라는 자질은,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다. 예전에는 “나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니까”라며 미루는 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그냥 성격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학부 막바지에 들어와서 보니, 이런 것들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인식’과 ‘시도’라는 면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 일정 관리 앱을 쓰면서 공부·연구·학생회 일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아침형 생활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아직 완벽하게 정착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나는 원래 야행성이야, 나는 원래 벼락치기야”라고 합리화하지 않고,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변화와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만큼은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고 느낀다. 다만 이 자질은 당장 “갖췄다”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다듬어야 할 숙제에 가깝다.

4. 신뢰와 도덕성 –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 솔직함을 더 키워야 할 부분

신뢰와 도덕성 측면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다. 전자는 그나마 자신 있는 편이다. 팀플이나 학과 일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 중간에 연락이 끊기거나 잠수 타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꾸준한 태도 덕분에 “애한테 맡기면 어떻게든 가져오긴 한다”는 신뢰는 어느 정도 쌓아 온 것 같다.

반면, 솔직함의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함을 느낀 적이 있다. 일이 예상보다 많이 밀렸을 때, “사실은 거의 못 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상황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할 때가 있었다. 그 순간에는 갈등을 피한 것 같지만, 결국 마감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들이 더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때 느꼈던 미안함이 한동안 마음에 남았다. 이 경험 덕분에, ‘신뢰’는 그냥 결과물만 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솔직함도 포함된다는 걸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힘들 때 일수록 더 정확하게 내 상태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5. 좋은 팔로워 되기 – 앞에 서는 것만큼, 옆과 뒤에서 받쳐 주는 역할

이번 학기 동안 과대표, 학부연구생, 팀 프로젝트 등을 동시에 하면서, 리더로 서는 순간과 팔로워로 서는 순간을 둘 다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의 경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리더가 내린 방향이나 팀이 정한 목표에 대해 불필요하게 반발하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다. 누가 팀장을 맡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정리된 내용을 노션이나 단톡방에 다시 한 번 정돈해서 올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는 일을 자주 해 왔다. 이건 앞에 나서서 지시하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옆과 뒤에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팔로워십에 가깝다고 느낀다.

다만, 좋은 팔로워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리더에게 피드백을 주고, 위험 요소가 보이면 미리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수업에서 배웠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돌려 말하거나 아예 삼켜버릴 때가 있다. 앞으로는 존중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피드백은 명확하게 건넬 수 있는 팔로워가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6.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역량 – 관심과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만, 준비는 이제 시작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부족한 자질 쪽에 더 가깝다. AI와 연구라는 분야 특성상, 영어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 발표를 듣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의 나는 영어 실력이나 글로벌 경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논문을 읽을 때도, 시간에 쫓기면 한글 번역본이나 블로그 요약에 기대고 싶을 때가 많다.

창의적 역량 역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쪽에 더 익숙하다.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을 따라 구현해 보고, 기존 모델을 조금 변형해 보는 수준에서는 재미를 느끼지만, “왜 이런 구조를 새로 제안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 두 가지 역량의 필요성을 지금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영어 논문 리딩과 세미나 발표, 새로운 모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7. 감성, 섬김, 겸손, 위기관리 –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된 자질들

마지막으로, 감성·섬김·겸손·위기관리 같은 자질은, 이번 학기에 과대표와 학부연구생을 병행하면서 가장 많이 체감한 부분이다.

감성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대화를 한 번 더 시도해 보거나, 회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 가볍게 농담을 던져보는 편이다. 아주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 사람 오늘 좀 지쳐 보인다” 정도는 눈치 채려고 하는 편이다.

섬김과 겸손 역시, 내가 앞에 나선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팀원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드러낼 수 있게 뒤에서 밟쳐 주는 역할에 더 익숙하다.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완전히 불이 난 상황을 멋있게 정리해 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감이 다가오는데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팀원 한 명이 갑자기 빠졌을 때, 남은 인원과 역할을 재배치하고, 구현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본 경험은 몇 번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모두의 의견을 너무 오래 듣다가 판단이 늦어지는 약점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섬김과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되,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단호한 선택을 연습해야 할 것 같다.

마무리하며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운 리더의 자질들을 기준으로 나를 정리해 보면, 나는 방향 설정, 책임감, 좋은 팔로워십, 섬김과 겸손 같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가진 편이고, 셀프리더십의 꾸준함, 솔직함을 포함한 신뢰, 글로벌·창의적 역량, 위기 상황에서의 단호한 결정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질들이 한 번 평가받고 끝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앞으로 대학원과 연구소,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야 하는 방향성이라는 점이다. 이번 학기 동안 했던 여러 역할들, 과대표, 학부연구생, 팀프로젝트, 오픈소스 활동, 장학생 활동 등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나’라는 리더의 밀그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졸업 이후에도 이 경험들을 발판 삼아, 기술적으로 실력 있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 신뢰받는 리더가 되도록, 부족한 자질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고 싶다.